

Issue No. 2019-09 September 2019	<b>국제 인권 동향</b> <b>Human Rights</b> <b>Worldwide</b>	
---	--	---

##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30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 이어 10월 1-2일 제4차 아셈 노인인권 컨퍼런스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회의는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 및 결정하고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UN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참가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참가 방향 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은 2011년 4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0번의 회의를 통해 노인의 여러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고, 노인들이 겪는 인권침해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해왔다. GANHRI 고령화실무그룹은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 해 제10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은 4월 15일부터 4일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 앞서 22개의 국가인권기구가 서면 답변서를 통해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9개 인권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연합체에서 회의에 직접 참여했다. 이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관한 부대행사에 패널로 참석하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와 운영, 아셈노인인권컨퍼런스”에 대하여 발표했다.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9월 30일)에 이어 개최되는 제4차 아셈 노인인권 컨퍼런스 (10월 1-2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럽연합과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아셈 회원국들이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각국의 노인인권 정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고령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방안, 근로자의 평생교육, 기술향상 및 기술습득, 4차 산업혁명과 노인의 인권, 세대 간 통합방안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다루는 세션1에서는 독일 차별방지 사무소 (German Anti-Discrimination Office)의 라이너 스타커 (Rainer Stocker), 국제 NGO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HelpAge International)의 에두아르도 클리안 (Eduardo Klien)의 유럽 사례 소개와 국가인권위원회 송오영 과장의 한국 등 아시아 사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세션 2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정부 부처, 필리핀의 국가인권기구의 참석자들이 노인의 교육을 주제로 각국의 사례를 공유한다. 4차 산업혁명과 노인인권에 관한 세션 3에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 OHCHR)의 페기 히크스 (Peggy Hicks)를 포함 정부 부처, 연구소, 국제기구의 참석자들이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 간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세션 4에서는 유엔인구기금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등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인권 NGO 소식	유엔 소식
<p><b>휴먼라이츠워치, 미국 요양시설 보호규제 완화 시도에 우려 표시</b></p> <p>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의 노인요양시설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 항정신병약 투여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공식의견을 제출했다.</p> <p>기존의 규제에 따르면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는 노인은 14일마다 의사나 약사의 진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진찰주기를 70일로 확대하여 치매증상이 있는 노인들의 사망위험을 높이는 약물에 대한 규제를 축소하고자 한다.</p> <p>휴먼라이츠워치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기존의 보호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여 항정신병 약물의 과다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러한 약물은 환자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요양시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p> <p>휴먼라이츠워치는 요양시설의 거주자들이 치료방법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고 약물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는 화학적 강박 (chemical restraint, 환자의 자유와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한 약물의 이용) 대신에 노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직원을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p> <p>한편, 국내에는 요양시설의 항정신병 약물 투여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나,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 내과 의사는 최대 1개월, 정신과 의사는 최대 3개월까지만 처방하도록 허용해 주기적으로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p> <p><a href="http://www.hrw.org/print/333780">http://www.hrw.org/print/333780</a></p>	<p><b>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미얀마 국가고문에 로힝야족 탄압 사태 해결 노력 촉구</b></p> <p>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더 늦기 전에 아웅산수찌 미얀마 국가고문이 로힝야족 탄압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p> <p>이 특별보고관은 현재 미얀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아웅산수찌 국가고문이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4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p> <p>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 남아있는 로힝야족은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식량, 의료서비스, 교육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p> <p>미얀마 정부는 난민들의 본국 송환을 위한 노력을 하는 대신에 방글라데시의 탓을 하고 있다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p> <p>위성사진을 통해 라카인주의 392개 마을이 파괴되었으며 이 중 320개 마을은 전혀 복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는 미얀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얀마가 로힝야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특별보고관은 비판했다.</p> <p>특별보고관은 소수민족에 대한 군의 탄압을 방지하고 로힝야족이 라카인주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늦기 전에 아웅산수찌 국가고문이 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p> <p><a href="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009&amp;LangID=E">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009&amp;LangID=E</a></p>

## 기획특집

### APF 회원기구들의 2018-2019 주요사업-호주, 아프가니스탄 국가인권기구

2019년 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연례회의에서 각 회원기구들은 2018-2019년도의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호주 국가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2018년 8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 담화를 개최하였다.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국내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파악하며, 향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과 합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담화주제를 제출하고 담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인권관련 협의를 실시하고 관련 분야에 관한 기술적 워크숍도 개최하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 (Afghanistan Independent Human Rights Commission)는 지난 한 해 위원장과 8명의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조직을 새롭게 하였다.

2018년 한 해에만 7,120건의 진정을 접수했으며, 이 중 5천 건 이상은 성폭력, 젠더기반 폭력에 관한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인권위원회는 2018-2019년도 아프가니스탄 여성 지위에 관한 여러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는 국가기관, 정부 기구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무력분쟁 및 테러 희생자의 권리에 대한 국가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권리 보호 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테러행위 희생자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2019년 유엔의 테러행위 피해자 지원 단체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http://www.asiapacificforum.net/resources/>

## 행사일정

### 2019년 9월 유엔 주요회의 일정

날짜	회의	비고
8/26-9/20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2차 회기	
9/9-9/27	아동권리위원회 제82차 회기	
9/9-9/27	인권이사회 제42차 회기	
9/16-9/20	강제실종 실무그룹 제119차 회기	
9/23-9/27	장애인권리위원회 실무그룹 제12차 회기	

###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

